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의 태도 조사: 장애아동 부모와 일반아동 부모의 비교

김 요 섭*

중부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겸임교수

최 영 중

중부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요 약》

선행 연구들은 장애아동은 일반아동과 비교할 때 학대의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을 뿐 아니라 실제로 학대를 경험하는 사례도 더 많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장애아동 부모와 일반아동 부모의 태도 조사를 통해 장애아동이 일반아동 보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더 큰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아울러 학대행위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성별, 부모의 학력 수준, 그리고 가족의 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도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으로는 5세에서 12세 사이의 장애아동을 둔 부모 113명과 같은 나이의 일반아동을 둔 부모 105명 등 총 218명이었다. 조사 도구는 아동 학대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된 설문지였으며, 이는 방임, 정서적 학대, 그리고 신체적 학대 행위의 3영역을 포함하여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아동 부모 집단이나 일반아동 부모 집단 모두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대체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 영역별로 두 부모 집단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장애아동 부모는 일반아동 부모에 비해 자녀의 방임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따라서 장애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방임에 처할 가능성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성별이나, 부모의 학력 수준, 그리고 가족의 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주제어 : 아동학대 행위, 방임, 장애아동, 일반아동, 부모의 태도

1. 서 론

1. 연구의 배경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제도적 장치인 아동복지법이 지난 2000년 7월 전면

* 제1저자, 교신저자 (yskimm925@hanmail.net)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대되면서, 아동학대와 관련한 연구 뿐 아니라 학대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들이 각 분야에서 모색되고 있다(박명숙, 2002; 정운수, 이정희, 200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4항). 이러한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와 같은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과 유기까지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아동복지법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명하는 아동학대 유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살펴보면, 때밀거나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벨트 등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팔이나 다리 등을 심하게 비틀어 쥐어짜는 행위, 뜨거운 물이나 물체, 담배불 등으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란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으로 위협하거나, 감금이나 억제 그리고 가혹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정서적 학대의 유형에는, 아동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 감금 행위, 집 밖으로 내쫓겠다고 하거나 원망적, 거부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아동발달 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기대로 아동을 괴롭히는 행위, 사발 시키는 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다른 아동과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방임(neglect)이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방임의 유형을 보면,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장시간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학교에 무단결석하여도 고의적으로 방치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숙제 및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와 같은 교육적 방임,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는 것과 같은 의료적 방임, 그리고, 아동과 대화를 하지 않거나 안아주지 않는 등 아동이 필요로 하는 애정 표현과 적절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 신체적 접촉을 피하는 것, 아동과의 약속에 무관심한 것 등이 포함되는 정서적 방임으로 나누어진다(아동복지법 제29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http://korea1391.org>).

우리나라에서의 아동학대 사례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학대와 방임 피해 아동들을 위한 보호체계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소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 현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43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하여 발간

된 만 0세부터 18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현황 자료는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 동안 아동학대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령 2001년의 경우 아동학대 사례가 2,105건 이었던데 반해 2006년은 5,202건으로써 6년 동안 무려 147% 증가하였다(이호균, 2006;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7). 따라서 18세 미만 아동인구 만 명당 아동학대율도 2001년의 경우 1.8명에서 2005년에는 4.2명으로 5년 동안에 약 130% 증가하였다(이봉주 등, 2007). 이와 같은 아동학대의 증가 현상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아동학대와 관련한 연구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동학대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먼저 아동학대의 개념규정 및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고성혜, 1992; 장화정, 이재연, 1999),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이봉주 등, 2007), 학대 실태에 대한 연구(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 2007), 학대의 후유증에 대한 연구(안동현, 2000; 홍강의, 2000) 등과, 아울러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정윤수, 이정희, 2003), 법적 한계에 대한 지적과 개선 방안(이호균, 2006), 아동학대 처리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방안(곽병선, 2005)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우리나라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나 예방 혹은 감소를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이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였고, 장애아동 학대와 관련한 연구는 저조한 편이다(박명숙, 2002).

장애아동 학대에 관한 외국의 연구들을 보면 장애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부당대우(maltreatment)나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실제로 학대를 당하는 사례도 일반아동보다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Ammerman & Baladerian, 1993; Crosse et al., 1993; Sobsey, 2002; Sobsey & Varnhagen, 1989, 재인용; Sullivan & Knutson, 2000; Verdugo et al., 1995). 먼저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에 대해 비교한 연구들을 보면, Sobsey와 Varnhagen(1989, 재인용)은 장애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최소한 1.5배 이상 높다고 하였고, Crosse 등(1993)은 발달장애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신체적, 성적인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2배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Verdugo 등(1995)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아동의 경우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일반아동에 비해 7.7배나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비록 연구들마다 정도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장애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장애아동이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는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 자기보호 능력의 부족, 학대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이로 인해 관련기관에 보고하는 능력 부족 등 아동자신이 가진 요인들과(Knutson & Sullivan, 1993; Sobes et al., 1997),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인들의 낮은 가치 평가와 같은 부정적인 태도와 장애아 양육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부모로부터의 학대 가능성 등(Sobes et al., 1997; www.thearc.org) 외부적인 요인들이 함께 지적되고 있다. 연구들은 이처럼 장애아동이

일반아동 보다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실제로 학대를 경험하는 비율도 높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먼저 Sullivan과 Knutson(2000)은 일반아동의 경우 1/10 정도가 학대를 경험한 반면 장애아동의 경우 무려 1/3 정도가 학대를 경험하며, 따라서 일반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의 학대 경험은 3.4배나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Ammerman과 Baladerian (1993) 역시 그들의 연구에서 장애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4-10배 정도나 많이 학대를 경험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Sullivan과 Knutson(1998)은 여러 유형의 장애아동 가운데서도 특히 정신지체 아동과 행동장애 아동이 언어/의사소통 장애나 학습장애, 청각장애 등 다른 유형의 장애아동보다 신체적 및 성적 학대, 그리고 방임을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Sobsey 등(1997)은 장애아동의 학대 경험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남자 아동들은 신체적 학대나 방임에 있어서, 여자 아동들은 성적 학대에 있어서 반대의 성을 가진 아동들에 비해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숙(2002)은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학대 유발 가능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의 교육 수준과 가족의 수입은 학대행위에 대한 태도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또 가족의 수입이 높을수록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즉 이것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으로,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과 낮은수입으로 인한 열악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어려움 등이 장애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그 결과 부모 스스로 자녀에게 가하는 학대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태도를 나타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앞서도 언급했듯이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연구는 저조한 편이다. 가령 보건복지부는 2001년부터 해마다 전국의 아동학대 현황에 대한 종합보고서인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호인 2006년 보고서에도 장애 아동들의 학대 현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아울러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나 실제 경험에 있어서 장애아동과 일반아동 집단을 비교, 조사한 연구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에는 학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대의 위험성에 보다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장애아동의 학대 문제는 장애와 학대라는 이중의 고통으로부터 장애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박명숙, 2002).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아동이 일반아동보다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거나, 혹은 실제 학대 경험의 비율이 더 높은지를 조사해 보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

심사 및 지원을 촉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아동이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연구해 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학대행위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조사하는 일일 것이다. 가령 학대행위가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학대행위 유발의 가능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부모가 학대행위에 대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학대행위 유발 가능성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장애아동 부모와 일반아동 부모의 태도 조사를 통해 장애아동이 일반아동 보다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더 큰지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사 및 지원을 촉구하는데 있다. 아울러 학대행위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성별, 부모의 학력 수준, 그리고 가족의 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장애아동 부모와 일반아동 부모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1) 아동의 성별, 2) 부모의 학력 수준, 그리고 3) 가족의 수입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재학 연령인 5세에서 12세 사이의 장애 자녀를 둔 부모와 일반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가 특정한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위해 서울, 경기 지역뿐 아니라, 인천 및 대전 지역 등 대도시 및 군데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설문의 대상으로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경기 및 대전지역 특수학교 각각 1군데 씩 2군데와 서울 지역의 사설 치료기관 1군데 등 3기관이었으며, 각 기관 직원의 도움을 얻어 총 19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일반아동 부모의 경우 인천지역의 초등학교 1군데와 경기지역의 유치원 1군데, 그리고 서울지역의 사설 교육기관 1군데 등 3기관의 협조를 얻어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총 160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배부 및 회수는 2007년 6월과 7월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배부된 설문지 가운데 회수된 부수는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127부(66.8%)였으며, 일반아동 부모의 경우 113부(70.6%)였다. 이 가운데 응답이 부실하거나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후 통계처리에 사용된 부수는 장애아 부모 113

부, 비장애아 부모 105부였다.

2. 조사 도구

본 연구를 위한 조사 도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연령, 학력, 가족의 월수입 등이었고, 자녀와 관련하여 성별, 연령 등이 장애아동 부모나 일반아동 부모 설문지에 공통으로 포함되었다. 여기에 장애아동 부모 대상 설문지에는 최근에 공포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장애 유형을 제시하고 자녀의 장애 유형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둘째는 학대행위에 대한 태도를 묻는 내용으로, 이는 장화정(1998)이 개발한 아동학대 척도 중 부모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학대행위의 정당성을 묻는 6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원래 이 척도는 방임,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그리고 성적 학대 등 4영역 8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대상을 고려하여 성적 학대 영역을 제외한 3영역, 즉 방임, 정서적 학대, 그리고 신체적 학대 영역으로 축소하였고, 문항수도 각 영역에 20문항씩 총 60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각 영역별 학대행위 문항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방임 문항으로서는 자녀가 칠지난 옷을 입게 내버려 두는 것(물리적 방임), 규칙(공중질서)을 지키지 않아도 내버려 두는 것(교육적 방임), 자녀의 생각을 무시하는 것(정서적 방임), 그리고 자녀에게 필요한 보조장치(예: 안경이나 보청기)를 해 주지 않는 것(의료적 방임) 등이 포함되었다. 정서적 학대 문항은, 원망적 언어학대, 위협적 언어학대, 경멸적 언어학대, 거부적 언어학대, 적대적 언어학대를 토대로 문항이 구성되었으며, 자녀에게 사사건건 잘못한다고 잔소리를 하는 것, 자녀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 자녀가 좋아하는 물건을 망가트리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학대 문항은, 손으로 자녀의 엉덩이를 때리는 것과 주먹으로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것과 같은 가벼운 학대에서부터 자녀의 신체를 벽에 부딪치는 것과 같은 심각한 학대 행위의 문항 등이 포함되었다.

주어진 60문항의 학대행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학대행위를 서술한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1점으로부터 '아주 정당하다'고 생각되면 5점에 체크하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높은 점수를 나타낼수록 학대유발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박명숙, 2002).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전체 문항의 신뢰도를 Cronbach Alpha로 검증한 결과, 전체 Cronbach Alpha는 .81이었으며, 영역별로는 방임, 정서적 학대, 그리고 신체적 학대 영역이 각각 .82, .77, .82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조사를 위한 자료는 SPSS-1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빈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 기술 통계를 통해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학대행위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였다. 학대행위에 관한 태도에 대한 장애아동 부모와 일반아동 부모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각 집단 내에서의 아동의 성별, 부모의 학력 수준, 그리고 가족의 수입 정도에 따라 학대 행위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지의 조사 대상자의 배경 부분을 통하여 나타난 부모 및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부모 가운데 본 설문지의 응답자를 살펴보면 장애아동 부모나 일반아동 부모 모두 어머니가 각각 88.5%와 85.7%로,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자녀양육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연령을 보면 장애아동 부모와 일반아동 부모 집단에서 30대 및 40대가 각각 92%와 99%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정도를 보면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고졸 이하가 31.9%, 대졸 이상이 68.1%였으며, 일반아동 부모의 경우는 고졸 이하가 32.4%, 대졸 이상이 67.6%로서 두 집단이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가족의 월 수입정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먼저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300만원 이하가 50.5%, 301만원 이상이 49.5%로서 3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양쪽이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일반아동 부모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가 33.4%, 301만원 이상이 66.7%로서 301만원 이상이 2/3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아동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장애아동의 경우 남자 아동이 72.6%로서 여자 아동(27.4%)보다 2.7배 정도 많으나 일반아동의 경우는 여자 아동이 58.1%로서 남자 아동(41.9%)보다 많음을 볼 수 있다. 장애아동 중 남자 아동의 비율이 여자 아동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는 성별 구성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4배 정도 많은(윤실, 2002) 자폐장애 아동이 본 연구에서 높은 비중(59% 이상)을 차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동들의 평균 연령을 보면 장애아동의 경우 9.3세, 일반아동의 경우 9.7세로 비슷하였다. 장애아동의 장애 유형을 보면 정신지체가 31.9%, 자폐성 장애아가 59.3%였으며, 기타가 8.9%였다.

<표 1> 부모 및 아동의 일반적 특성

구분		장애아동 부모(113명)	일반아동 부모(105명)
성별	부	13 (11.5%)	15 (14.3%)
	모	100 (88.5%)	90 (85.7%)
연령	20-29세	2 (1.8%)	
	30-39세	38 (33.6%)	58 (55.2%)
	40-49세	66 (58.4%)	46 (43.8%)
	50세 이상	6 (5.3%)	1 (1%)
	무응답	1 (0.9%)	
교육 정도	고졸 이하	36 (31.9%)	34 (32.4%)
	대졸 이상	77 (68.1%)	71 (67.6%)
가족의 월수입	100만원 이하	4 (3.7%)	1 (1.0%)
	101-200만원	18 (16.5%)	6 (5.7%)
	201-300만원	33 (30.3%)	28 (26.7%)
	301-400만원	34 (31.2%)	30 (28.6%)
	401-500만원	7 (6.4%)	18 (17.1%)
	501만원 이상	13 (11.9%)	22 (21.0%)
구분		장애아동(113명)	일반아동(105명)
성별	남	82 (72.6%)	44 (41.9%)
	여	31 (27.4%)	61 (58.1%)
연령	5-6세	24 (21.3%)	15 (14.3%)
	7-9세	28 (24.8%)	28 (26.7%)
	10-12세	61 (54.0%)	62 (59.1%)
	평균	9.3세	9.7세
장애 종류	정신지체	36 (31.9%)	
	자폐성 장애	67 (59.3%)	
	정서·행동장애	2 (1.8%)	
	발달지체	1 (0.9%)	
	중복장애	7 (6.2%)	

2. 장애아동 부모와 일반아동 부모의 태도 비교

본 연구의 첫째 목적은 아동 학대행위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장애아동 부모와 일반 아동 부모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앞서도 밝혔듯이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에서의 아동 학대행위의 척도는 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의 3개 영역으로 나누어졌으며 각 영역은 20문항씩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학대행위를 나타내는 각 문항에 대해 부모는 1점 ‘아주 부당하다’에서부터 5점 ‘아주 정당하다’ 중 한 군데 체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학대행위 문항에 대한 두 집단 부모의 태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두 집단 모두 3영역의 20문항씩을 합산한 영역별 점수를 산출하였

으며, 이 점수의 범위와 평균을 아래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부모 집단별 비교를 위한 영역별 평균 및 t값

구분	장애아동 부모(113명)	일반아동 부모(105명)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방임	26.97 (6.30)	29.07 (5.89)	-2.417*
정서적 학대	25.87 (6.98)	26.99 (6.34)	-1.189
신체적 학대	26.95 (5.64)	27.95 (5.59)	-1.322
3영역 합계	79.79 (16.43)	84.01 (14.81)	

* $p < .05$

<표 2>에 나타나듯 먼저 장애아동 부모 집단의 영역별 평균을 보면 방임,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가 각각 26.97, 25.87, 26.95였으며, 일반아동 부모 집단의 경우 각각 29.07, 26.99, 27.95였다. 이는 각 영역 모두 산출 가능한 점수가 20-100점 사이라고 볼 때 비교적 낮은 점수로, 두 부모 집단 모두 학대행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 차별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와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한국적인 문화로 인해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학대행위를 비교적 관대하게 받아들인다는 선행연구들과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박명숙, 2002, p. 320).

한편으로 두 부모 집단에 있어서 영역별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3영역 모두 일반아동 부모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서 나타나듯 정서적 학대나 신체적 학대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방임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2.417, p < .05$). 즉 장애아동 부모가 자녀의 방임에 대해서는 일반아동 부모보다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각 변인에 따른 태도 비교

본 연구의 둘째 목적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여러 가지 변인 즉 아동의 성별, 부모의 학력, 그리고 가족의 수입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다음은 각 집단 내에서의 여러 변인에 따라 부모의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이다.

1) 아동의 성별에 따른 태도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태도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영역별로 평균

을 조사해 보았다.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남자 아이를 가진 부모가 여자 아이를 가진 부모보다 3영역 모두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 일반아동 부모의 경우는 정서적 학대나 신체적 학대 영역에서 여자 아이를 둔 부모가 다소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장애아동 부모 집단이나 일반아동 부모 집단 모두 학대행위에 대한 태도가 양육하는 자녀의 성에 따라 다르지는 않았다.

<표 3> 아동 성별에 따른 비교를 위한 영역별 평균 및 t값

구분	장애아동 부모(113명)			일반아동 부모(105명)		
	아동(남)	아동(여)	t값	아동(남)	아동(여)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방입	27.15 (6.41)	26.51 (6.01)	0.448	29.07 (5.91)	29.06 (5.93)	0.002
정서적 학대	26.11 (7.18)	25.23 (6.47)	0.596	26.55 (5.80)	27.31 (6.75)	-0.558
신체적 학대	27.35 (5.99)	25.87 (4.34)	1.169	27.84 (5.14)	28.03 (5.93)	-0.188
3영역 합계	80.61 (16.99)	77.61 (14.71)		83.45 (13.68)	84.41 (15.68)	

2) 부모의 학력에 따른 태도

부모의 학력 수준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기 위하여, 학력 수준을 두 그룹 즉 고등학교 졸업까지와 대학교 졸업 이상의 그룹으로 분류한 후 평균을 조사해 보았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애아동 부모 집단과

일반아동 부모 집단 모두 동일하게 고등학교까지의 졸업 학력을 가진 부모 그룹이 대학교 졸업 이상의 부모 그룹에 비해 3영역 모두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t 테스트 결과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4> 부모의 학력 수준에 따른 비교를 위한 영역별 평균 및 t값

구분	장애아동 부모(113명)			일반아동 부모(105명)		
	고졸 이하	대졸 이상	t값	고졸 이하	대졸 이상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방입	27.92 (6.60)	26.53 (6.19)	1.032	29.53 (5.90)	28.85 (5.91)	0.536
정서적 학대	25.89 (7.70)	25.86 (6.67)	0.022	27.62 (5.66)	26.69 (6.69)	0.641
신체적 학대	27.33 (5.93)	26.77 (5.54)	0.464	28.76 (5.08)	27.56 (5.87)	1.124
3영역 합계	81.14 (18.34)	79.16 (15.59)		85.92 (13.87)	83.1 (15.35)	

3) 가족의 월수입 정도에 따른 태도

아동학대에 대한 태도가 가족의 수입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기 위

하여, 두 집단 모두에서 가족의 수입을 300만원 이하와 301만원 이상의 두 그룹으로 분류한 후 평균을 조사해 보았다. 300만원 이하와 301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분류한 이유는 먼저 통계청이 발표한, 본 논문의 설문 조사 시기에 해당되는 2007년 2/4분기 월 평균 가계수입(309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양분하고자 하였으며(통계청, www. kosis. kr), 본 조사 집단 부모들의 가족 수입 조사 결과에 따른 분포 역시 대체적으로 300만원을 전후하여 양분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과를 보면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애아동 부모 집단과 일반아동 부모 집단 모두 동일하게 300만원 이하 그룹이 301만원 이상 그룹에 비해 3영역 모두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가족의 월수입에 따른 비교를 위한 영역별 평균 및 t값

구분	장애아동 부모(113명)			일반아동 부모(105명)		
	300만원 이하	301만원 이상	t값	300만원 이하	301만원 이상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방임	27.45 (6.67)	26.51 (6.03)	0.729	29.37 (5.77)	28.91 (5.94)	0.361
정서적 학대	26.30 (7.39)	25.5 (6.53)	0.603	27.89 (5.26)	26.54 (6.83)	0.937
신체적 학대	27.49 (5.93)	26.5 (5.49)	0.849	29.14 (5.23)	27.36 (5.79)	1.697
3영역 합계	81.25 (17.81)	78.52 (15.05)		86.4 (13.15)	82.81 (15.57)	

IV.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장애아동 부모와 일반아동 부모의 태도 조사를 통해 장애아동이 일반아동 보다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더 큰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학대행위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성별, 부모의 학력 수준, 그리고 가족의 수입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장애아동 부모나 일반아동 부모 모두 대체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의 아동학대 사례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7; 이봉주 등, 2007), 이에 대한 대책이 다양하게 강구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이호균, 2006).

둘째,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장애아동 부모와 일반아동 부모의 태도를 비교해 본

결과, 장애아동 부모가 자녀의 방임에 있어서 일반아동 부모보다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대행위에 대한 태도는 자녀가 학대의 위험성에 노출될 정도나 학대를 당할 가능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학대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더 부여하는 부모의 자녀일수록 학대의 위험성이나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박명숙, 2002). 외국의 연구들은 장애아동이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볼 때 학대의 위험성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지만(Crosse et al., 1993; Sobsey & Varnhagen, 1989, 재인용),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는 반대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장애아동 부모가 일반아동 부모에 비해 자녀를 방임할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먼저 장애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부모의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장애아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의 제약과 자기보호 및 관리능력이 부족함으로 인해 일반아동보다 양육자로 부터의 보호와 양육자에 대한 의존이 더 필요하며, 따라서 대체적으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는 일반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비해 자녀에게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양육을 소홀히 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는 자신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보다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아동의 특성상 부모에게 더 의존하게 되고 이는 부모로 하여금 심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를 느끼도록 하며, 만약 부모가 이에 대해 충분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자녀에 대해 소홀하거나 방임에 처하도록 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도 있다(박명숙, 2002; Ferrington, 1986, 재인용; Goldson, 1998).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장애아동 부모들은 자녀 양육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건강한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으로 해석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장애아동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온정주의와 이로 인한 과보호의 경향이 방임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녀에 대한 방임은 당연히 피해야 하지만, 과보호 또한 자녀의 정서적, 신체적 성숙과 발달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자기결정 능력과 독립심을 기르는데 방해가 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두 부모 집단 모두 아동 학대행위의 영역 중 어느 영역에서도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여 주지는 않았다. Sobsey 등(1997)의 연구 결과를 보면 남자 아동들은 여자 아동들 보다 신체적 학대나 방임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자녀들이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본 연구에 참여한 두 부모 집단 모두 아동 학대행위의 영역 중 어느 영역에

서도 부모의 학력 수준이나 가족의 수입에 따라 상이한 태도를 보여 주지는 않았다. 선행 연구(박명숙, 2002)는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또 가족의 수입이 높을수록 아동 학대행위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하였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일치하지 않았다.

2.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도 밝혔듯이 본 연구에 참여한 장애아동 부모 및 일반아동 부모 모두 아동학대 행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학대행위에 대한 부모들의 의식적인 자기방어 경향이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본 연구에 있어서 제한점으로 남을 것이며, 추후의 연구는 이를 고려한 조사 방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보여준 부모들의 학대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보아 실제로 자녀 학대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추후 연구는 실제 학대행위 경험을 조사함으로써 부모의 태도와 실제 경험이 동일한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한 영역인 성학대 부분을 포함시키지 못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이 부분도 포함시킴으로써 아동학대 영역 전체에 대한 부모의 태도 조사가 요구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 참여한 장애아동 부모 응답자는 정신지체나 자폐장애 등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조사 대상을 지체장애나 시각장애 혹은 청각장애 등 다른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도 확대함으로써 모든 장애영역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등 대도시 몇 군데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더 많은 지역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진다면 보다 더 일반화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곽병선(2005). 아동학대 현상과 법적 고찰. **법학연구**, 20, 1-21.
 고성혜(1992). 아동학대 개념 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 자녀의 지각성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명숙(2002). 아동학대 유발요인으로서 장애아동부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1, 311-327.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6).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7).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2005. 6. 23, 법률 제 8006호).
- 안동현(2000). 신고된 아동에서 학대 후유증 연구. **아동학대의 실태 및 후유증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 개발 사업 최종보고서, 173-222.
- 윤실(2002). **장애아의 부모를 위하여**. 서울: 전파과학사.
- 이봉주, 김광혁, 정익중, 김예성, 나은숙(2007). 가족배경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와 방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발표 자료집**, 179-186.
- 이호균(2006). 아동학대의 실태 및 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가정법 연구**, 20(1), 163-192.
- 장화정(1998). 아동학대 평가 척도 개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화정, 이재연(1999). 아동학대 평가 척도 개발(I). **아동권리연구**, 3(1), 77-96.
- 정운수, 이정희(200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네트워크 분석. **한국 행정학회하계 학술대회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http://korea1391.org>
- 통계청 홈페이지 www.kosis.kr
- 홍강의(2000). 한국의 아동학대 실태조사 연구. **아동학대의 실태 및 후유증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 개발 사업 최종보고서, 39-77.
- Ammerman, R. T. & Baladerian, N. J.(1993). *Maltreatmen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Chicago, IL: National Committee to Prevent Child Abuse.
- Crosse, S., Elyse, K. & Ratnofsky, A.(1993). *A report on the maltreatmen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Washington, DC: 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Ferrington, K.(1986). The application of stress theory to the study of family violence: Principles,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 131-147.
- Goldson, E.(1998).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22(7), 663-667.
- Knutson, J. & Sullivan, P.(1993). Communicative disorders as a risk factor in abuse. *Topics in Language Disorders*, 13(4), 1-14.
- Sobsey, D.(2002). Exceptionality, Education, and Maltreatment. *Exceptionality*, 10(1), 29-46.
- Sobsey, D. & Varnhagen, C.(1989). *Sexual abus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M. Csapo & L. Gougen(Eds.). *Special education across Canada: Challenges for the 90s*(pp 190-218). Vancouver: Centre for Human Development & Research.
- Sobsey, D., Randall, W. & Parrila, R.(1997). Gender differences in abused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Child Abuse & Neglect*, 21(8), 707-720.
- Sullivan, P. & Knutson, J.(1998).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 maltreatment and disabilities in a hospital-based epidemiological study. *Child Abuse & Neglect*, 22(4), 271-288.
- Sullivan, P. & Knutson, J.(2000). Maltreatment and disabilities: A population-based epidemiological study. *Child Abuse & Neglect*, 24(10), 1257 -1273.
- The Arc 홈페이지 www.thearc.org
- Verdugo, M. A., Bermejo, B.G. & Fuertes, J.(1995). The maltreatment of intellectually handicapped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19(3), 205-215.

Parent attitudes toward child abuse: A comparison between parents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Kim, Yo Seob

Department of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Joongbu University

Choi, Yung Jong

Department of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Joongb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wofold. First, it investigated whethe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e more at risk of being abused by their parents than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through parent attitude questionnaire toward child abuse. Second, it also examined whether there was difference in parent attitudes toward child abuse according to children's gender, parental education level, and family income. 113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105 parents of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were participated. A survey composed of 3 categories including 60 questions of child abuse behaviors was u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both parent groups generally showed very negative attitudes toward child abuse. Second, in comparison between two parent groups,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ok more negative attitudes toward child neglect than those of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That meant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e less at risk of being neglected by their parents than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In both groups, there was no differences found in parent attitudes toward child abuse according to children's gender, parental education level, or family income. Discussions about why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ok more negative attitudes toward child neglect than those of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were provided.

Key words: Child abuse, child neglect, children with disabilities,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parent attitudes.

논문 접수: 2007. 8. 4 심사 시작: 2007. 8. 5 게재 확정: 2007. 9. 21